

'연 이자 120%'... 광주·전남 불법사금융 여전히 기승

3년간 394건 465명 검거...법 테두리 벗어나 피해 구제 난망 정부·지자체 차원 소액 대출 정책 통해 서민들 숨통 틈워줘야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전남에서 여전히 불법 대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맞물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의 표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4년 8월)간 유사수신행위,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총 194건 발생했다. 관련해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52명에 달한다.

2021년 38건이었던 불법사금융 범죄가 2022년

44건, 2023년 53건으로 3년 사이 39.4%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9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를 뛰어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3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는 총 227건으로, 2021년 49건, 2022년 46건, 2023년 66건, 2024년 8월까지 66건 발생했다.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총 213명이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에 받을 들었다가 불법 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낮은 시기에 채권 추심을 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위법행위 등이다. 폭언과 협박 등도 동원된다.

실제 지난달 25일 광주의 한 대학에 따르면 재학생 A양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가족 등의 전화번호 145개를 넘겼다. 지인들은 'A양이 돈을 갚지 않으면 A양이 제공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에는 2018년 7월부터 담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불법사금융 업자 B(52)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기간 내 못 갚을 경우 복리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 행

패를 부렸다. B씨에게 6000만원을 빌린 40대 여성은 B씨에게 4개월 넘게 시달리다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불법사금융 관계자 5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00여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두 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담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도 요구했다. 피해자인 광주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를 일당에게 넘겼고, 해당 학부모는 "대신 변제하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

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업체가 대표통장이나 대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는만큼 불법 사금융 관련 광고를 조사해 대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사 당국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몇 십 만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소액 대출 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충·장·발·光(광) 축제 속으로 제21회 광주 추어의 총장축제 개막을 앞두고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조성된 테마거리에서 인형 동구청장과 총장프렌즈 인형 및 총장 시니어 모델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총장축제는 '충·장·발·光(광)-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24층 아파트서 투신...에어매트가 살렸다

광양 20대 여성 목숨 건져

광양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20대 여성이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떨어지면서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던 투숙객 2명이 숨진 것과 달리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

1일 광양소방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광양시 중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A(20)씨가 투신했다.

24층 아파트의 옥상에서 추락한 A씨는 소방대원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팔 위쪽 통증을 호소한 것 외에 뚜렷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 고민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사용된 에어매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5층형 모델(가로 4m, 세로 5m, 높이 2.5m 규격) 제품이라고 소방은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줄지 않는 음주운전

광주·전남, 5년새 5만1800여건 적발... 121명 사망·9799명 부상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5만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사이 광주에서는 2만 1889건(명), 전남에서는 2만 977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최근 5년 새 음주 교통사고도 6000여건 발생해 121명이 숨지고 9799명이 다쳤다.

광주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4063건, 2020년 4327건, 2021년 4154건, 2022년 4547건, 2023년 4798건으로 증가세였다.

전남에서도 2019년 6184건, 2020년 5710건, 2021년 5583건, 2022년 5724건, 2023년 6575건으로 최근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적발된 건수 가운데 광주 1만 4479건(66.1%), 전남 2만 66건(67.3%)이 음주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광주 2485건(사망 29명, 부상 4287명), 전남 3526건(사망 92명, 부상 5512명) 등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이 숫자 뒤에는 무고한 생명과 가족들의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역대급 쉬웠던 '9월 모평'...수능 '난도 상향' 대비해야

국어·수학 '6월 모평' 수준...영어, 9월보다 어려워질 듯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 평가 결과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이 역대급으로 쉬웠기 때문이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9월 모의평가가 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낮았고, 수학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6월 모의평가 1%대에서 이번엔 10%대로 경중 뒤편었다.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이 없는 쉬운 시험이었던 셈이다.

수험생 입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치른 두차례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극과 극'이어서, 어느 수준에 무게를 두고 공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본수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광주 고교진학담당 교사들도 최근 9월 모평평가 분석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배제됐으나 평이하게 출제된만큼 실제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원이 확대돼 상위권 변별력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수준에 근접하게, 영어는 9월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남은 기간 남은 기간 학습 수준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